

재활→부활... 생애 최고의 해 도전



◀ 한기주

“맞는 것은 두렵지 않다
변화구 장작 강약 조절
나의 해 만들겠다”

KIA 타이거즈의 '토끼띠' 투수 한기주·손영민이 신묘년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급 마무리와 필승 계투로 KIA 마운드를 지켰던 1987년생 동갑내기 한기주와 손영민에게 2010년은 아픔과 좌절의 시간이었다. 2009시즌이 끝나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한기주는 지난해 혹독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빠른 페이스로 8월 말 심전파검사까지 소화했지만 허리와 팔꿈치 통증으로 공을

KIA 토끼띠 한기주·손영민의 올 시즌 포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결국 한기주는 예고됐던 마무리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재활 조에서 연말을 보냈다.

2009년 좌정철·유동훈과 막강 'SKY'라인을 형성하며 V10의 공신이 됐던 손영민도 2010년 계속된 부진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들쭉날쭉한 피칭을 보인 손영민은 2010시즌 4.63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3승 5패 18홀드 5 블론세이브를 남겼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던 만큼 새해를 맞는 두 선수의 각오는 남다르다.

3일 재활조로 곧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한기주는 “재활을 하면 좋아졌다가 한 번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그런 힘든 시기다. 마무리캠프도 같이 못 가고 그래서 마

음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재활을 하면서 마운드에 대한 간절함도 더해졌다. 차분하게 재활을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하겠다”고 새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재활이 진행중인 만큼 특별한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은 높다.

한기주는 “야구를 다시 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올 한해가 기대된다. 최종적인 목표는 선발이지만 일단 주어진 보직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 지난해 못했던 것을 보여드리겠다. 맞는 것은 두렵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구 준비도 하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나의 해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던 손영민은 체

손영민 ▶

“커브 그림에 변화 줬다
팀 중간계투는 내 역할
반드시 홀드왕 될 것”

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지난 시즌 눈에 띄게 몸이 붙었던 손영민은 마무리 캠프를 통해 7kg가량 몸무게를 감량했다. 주무기인 커브도 한층 매섭게 가다듬었다.

손영민은 “지난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부진감속에 실수와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스스로



부너졌다. 마무리캠프에서 살을 많이 빼서 몸도 가볍고, 커브 그림에도 변화를 줬다. 시즌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한해의 마무리를 잘했다”며 “올 시즌에도 중간 계투로 뛰게 된다면 팀의 승리를 지키는 게 내 역할이다.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홀드왕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도 한류열풍!

박찬호·이승엽·임창용·추신수
일본서... 미국서... 맹활약 예고

2011년에도 해외 야구 선수들의 맹활약은 계속된다. 토끼띠처럼 지체롭고 부지런하게 녹색 다이아몬드를 누빌 해외 주력 선수 후보는 모두 5명.

박찬호가 일본에서도 통할지, 그와 한솥밥을 먹는 이승엽(35)이 오릭스 버펄로스라는 새 동지에서 호쾌한 스윙을 뽐낼지, 일본 진출 첫해인 지난해 일본시리즈 정상에 오른 김태균(29·지바 롯데)이 2년차를 맞아 한 층 파워풀한 타격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3년간 15억엔이라는 초특급 대우를 받고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잔류한 임창용(35)이 일본 최고 마무리투수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지도 주목된다.

유일한 메이저리거로 남은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3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라는 진기록을 향해 댄다.

◇'연봉 노리는 박찬호·이승엽=최종 종착역인 한국행을 앞두고 일본에 중간 정착한 박찬호는 일본에서 제2의 인생을 열어젖혔다. 박찬호는 이미 구단으로부터 선발투수 한 자리를 보장받아 2007년 이후 4년 만에 선발로 복귀한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포심 패스트볼이 여전히 쓸 만 하고 킷 패스트볼 위력도 괜찮기에 일본 무대 적응 여부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연봉 1억5000만엔에 2년간 오릭스에서 활약할 이승엽은 홈런 30개와 100타점 이상을 올리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국에서 324개, 일본에서 144개 홈런을 때린 이승엽은 32개만 보태면 한일통산 500홈런 고지를 밟는다.

◇'상승세' 임창용·김태균= 몸값에서 이미 일본 최고 소방수로 인정받은 만큼 임창용은 구원 타이틀로 진가를 확실히 보여 주겠다는 욕심이 강하다. 지난해 타율은 0.268에 그쳤으나 홈런 21방과 92타점을 수확, 지바 롯데 우승에 힘을 보탠 김태균은 체력 안배를 잘해 올해에는 타율과 홈런을 모두 늘리겠다는 포부다.

◇'연봉 대박' 추신수=정교한 타격과 한 방 능력, 강한 어깨와 주루 센스를 모두 겸비한 만능선수로 통하는 추신수는 연봉 조절을 통해 300~400만달러는 너끈히 받아낼 것으로 보여 백만장자 진입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작년에 올린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2개), 타점(90개), 도루(22개) 등을 죄다 갈아치워 진화를 거듭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동현(위)이 2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125' 웰터급 경기에서 미국의 네이트 디아스를 레슬링 기술로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동원-손흥민 영파워!

시리아전 승리 이끌어... 조광래호 해결사로

박주영의(AS 모나코) 빈자리에 어린 공격직인 한국 대표팀의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니아스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평가전 승리는 말 그대로 짧은 피의 힘이었다.

'중동의 복병' 시리아를 상대로 전반 내내 마무리 부족에 시달렸던 조광래호는 후반에 투입된 젊은 선수들의 활기찬 역습을 앞세워 결승골을 만들어 2010년의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장식했다. 대표팀의 막동이들 지동원(20·전남)과 손흥민(19·함부르크)은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를 맡아 특유의 기동력을 앞세워 시리아의 측면을 흔들었고, 지동원 역시 최전방과 오른쪽 측면을 오가며 공격 기회를 노렸다.

조광래 감독은 K-리그 득점왕 유병수(인천·23)에게도 기회를 줬다. 모처럼 기회를 잡은 '젊은 피'들은 넘쳐나는 체력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고, 마침내 후반 37분 승리를 결정하는 결승골을 합작하며 코칭스태프의 믿음을 보답했다.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하던 지동원은 유병수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한 차례 속인 뒤 왼발슛으로 시리아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2011년 아시안컵뿐 아니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내다본 선수 선발에 나선 조광래 감독으로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한편 6일 결전의 땅 카타르로 이동하는 대표팀은 4일 UAE 클럽 알 자지라와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김동현 美 격투기 UFC 5연승

한국 격투기 간판 선수인 '스텐 건' 김동현(29)이 미국 종합 격투기대회인 UFC에서 5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동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125' 웰터급 네이트 디아스(25·미국)와 경기에서 만장일치 판정승(3-0)으로 이겼다.

이로써 김동현은 UFC에서 5연승을 거두면서 격투기 무대에서 14승1무1무효의 화려한 성적을 올렸다. 2008년 5월 UFC에 데뷔한 김동현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인대를 다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재활을 거쳐 지난 5월 격투기 무대에 복귀해 UFC 4연승을 올렸고 이날 경기까지 따내면서 상승세를 이었다.
/연합뉴스

침대-100% ITALY

소파-100% ITALY

엔틱좌탁-100% ITALY

엔틱식탁-100%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일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홍스페이스는 1992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역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